여성국(준) 1,2월 사업계획서(초초안)

1. 민족복현 여학생 운동의 전반적인 현황

99년이후로 민족복현에서는 총여학생회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농대, 사범대에서 각각 단대 여학생회가 세워졌지만, 총여학생회가 없는 상황에서 단위 여학생회만으로는 여학생회 자체의 흐름을 이어가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조직이 없는 만큼 모든 학내의 고민이 단위 여학생회의 몫으로 넘어가고, 단위는 그러한 사업들을 받아 안아 내느라 단위의 사업이나 단위의 기층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면서 단위 여학생회 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이 드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기야는 단대 마저 여학생회라는 공간을 세워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여학우들을 책임지는 단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학우들을 책임지는 단위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크나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단지 책임을 질 만한 체계가 없는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민족복현에서 여학생 운동의 인적, 물적 토대가 사라지고 그 이따한 기반과 주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여학생회 체계 뿐만 아니라 여학생 위원회, 여성 소모임 등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던 단위는 그 고민을 발현시켜줄만한 상층단위의 부재로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주체들도 사라졌습니다.

2. 여성국에 대해서

기간의 평가는 중앙 조직에 대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의 부재 속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총학생회에서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총학생회 여성국에서 여학우들의 모든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실현해나가는 것, 그리고 여학우들의 고민들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여성국 건설에 대한 고민입니다.

3. 시기규정

- 2003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한해의 인적·물적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 일본대회와 새터 등의 대중 사업 공간을 십분 활용하여 학우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본관과의 협상에서도 학칙 제정의 원칙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 과제와 방도

[1] 대중 투쟁 과제

■ 반(反)성폭력 학칙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반(反)성폭력 분위기를 높여가야 합니다.
일본대회와 새터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반(反)성폭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 일본대회와 새터 공간을 통한 강연사업
- ▶ 새터에서의 반(反)성폭력 지킴이 & 새로운 신입생 환영문화 만들기
- ▶ 신전·의식화 사업

[2] 조직·사상적 과제

■ 인적·물적 토대를 통한 기반 마련하기

- ▶ 단위 실사와 단대 주체 세우기
- ▶ 과, 단대, 소모임 등의 실사작업
- ▶ 골간체계 꾸리기 - 과 여학생회장 인식회의
- ▶ 실사 작업을 통한 공간 마련

■ 일본들의 교양사업

3, 4월 여성국 사업을 구상하면서...(초초안)

개강을 한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민족복현은 온통 새내기들의 귀여운 재잘거림과 호기심 많은 눈초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가 2003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새터에서 대박을 터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냥 터진 대박은 아니겠죠... 학우들을 중심에 놓고, 학우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이었기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총학생회 여성국은 또 한번 대박을 꿈꿉니다.
당연히 그냥 이루어질 대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학우들을 중심에 놓고, 언제나 여학우들을 생각하면서 여학우들이 당당히 주체로 서기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벌여가는, 그래서 여학우들의 가슴속에 총학생회 여성국이 작게나마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대박을 꿈꿉니다.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첫 번째, 학칙안 공개와 해설

- ▶ 과 학생회, 단대 운영위, 중앙 운영위 등 골간체계를 통한 간담회
- ▶ 반(反)성폭력에 대한 릴레이 강연회
- ▶ 학칙안에 대한 학내 공청회

두번째, 과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활동

- ▶ 과 학생회장과 새내기 대표가 함께 하는 선언운동
- ▶ 실천단 활동(과 여학생회 발동)
- ▶ 과내에서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인문대 국문과, 철학과를 중심으로...)

살아숨쉬는 여학생 휴게실

첫 번째, 여학생 휴게실 관리자 모임

- ▶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 ▶ 인적·물적 토대 마련

두 번째, 여학우들이 주체로 서는 여학생 휴게실

- ▶ 여학생 휴게실 내부 기획 선전

과 여학생회장 세로모임

화장실 선전

새내기와 함께 하는 대동학교

민족복현 35대 행복교감 자주 총학생회

대박 여성국 3,4월 나기

주는 곳 : 행복교감 자주 총학생회 여성국
받는 곳 : 행복교감 자주 총학생회 여성국을 제외한 모든 곳

0. 여성국 3,4월 사업을 구상하면서...

개강을 한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민족복현은 온통 새내기들의 귀여운 재잘거림과 호기심 많은 눈초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가 2003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2003년 새터에서 대박을 터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냥 터진 대박은 아니겠죠... 학우들을 중심에 놓고, 학우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이었기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총학생회 여성국은 또 한번 대박을 꿈꿉니다.
당연히 그냥 이루어질 대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학우들을 중심에 놓고, 언제나 여학우들을 생각하면서 여학우들이 당당히 주체로 서기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벌여가는, 그래서 여학우들의 가슴속에 총학생회 여성국이 작게나마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대박을 꿈꿉니다.

1.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붐처럼 일고있는 몇 대 과제 사업^^)

【 4대 과제 】

하나,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학우들과

학우들 속에서 반(反)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반(反)성폭력 학칙에 대해서는 어쩌면 학우들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지도 모릅니다. 반(反)성폭력 학칙을 학우들과 함께 학우들의 힘으로 제정합시다.

- ▶ 과 학생회, 단대 운영위, 중앙 운영위 등 골간체계를 통한 반(反)성폭력 학칙 간담회
- ▶ 반(反)성폭력에 대한 릴레이 강연회
- ▶ 학칙 안에 대한 학내 공청회
- ▶ 과 학생회장과 새내기 대표가 함께 하는 선언운동
- ▶ 실천단 활동(과 여학생회 발동)
- ▶ 과내에서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인문대 국문과, 철학과를 중심으로...)

둘, 양성평등한 모꼬지 문화 만

3,4월을 모꼬지를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모꼬지는 과 학우들의 단합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성폭력·군사주의 등 가부장적 문화의 온상지이기도 합니다. 모꼬지를 시작으로 학우들의 가부장적 일상에 과감히 파고들겠습니다.

▶ 모꼬지 성폭력 뿌리뽑기
▶ 모꼬지 군사주의 문화척결 - 선후배 사이 위압적인 분위기, 기합훈련에 대한 제기
▶ 모꼬지 가부장적 문화 척결 - 양성평등한 생활수칙 제안하기
▶ 양성평등 문화 지킴이 활동

셋,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여성주의 의식지

민족복현은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의식지형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상적인 선전으로 학우들의 여성주의적 의식지형을 만들어갑니다.

▶ 화장실 선전과 백지 대자보
▶ 여학생 휴게실 내부 기획 선전과 각 단위 기획선전
▶ 여성 게시판 마련

그리고 일꾼들이 뭘 알아야 학우들과 소통을 하죠!! 우리 일꾼들부터 공부하고 준비합시다.

▶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이해와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한 일꾼학교
(4월 3일 : 가안)

과 여학생회장들이 바로서야 과 학우들의 의식흐름이 잡힙니다.

▶ 과 여학생회장 세로모임 정례화

넷, 살아 숨쉬는 여학생 휴게실을

여학우들만의 공간이지만, 여학우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진정 여학우들만의 공간이 됩니다.

▶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
▶ 여학생 휴게실 홍보 사업
▶ 여학생 휴게실 관리자 모임

3. 특별사업

'복현인, 마당에서 놀자!' 주간 여성부문 마당사업 《대동학교》 진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로 고민)
- 기획안 추후 제출

4. 시기별 흐름

▶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흐름은 학자 흐름과 함께 고민
▶ 양성평등한 모꼬지 문화 -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각 단대 모꼬지 일정에 맞추어서)
▶ 대동학교 -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